

제4차 시민강좌 제4강

만주국의 근대도시들 -“봉천(奉天)”과 “신경(新京)”-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
2013년 10월31일

만주국

1. 만주국(滿州國)의 성립, 발전, 멸망

만주(滿州)는 역사적으로 거의 여진족의 지배지역

만주국 건국 이전에 여진족이 세운 왕조는 금(金), 후금(後金)

만주는 청조 멸망(1912년) 이후 중화민국(中華民國)의 영토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군벌(軍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

1931년 유조구(柳條溝) 사건을 계기로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일본군(관동군: 關東軍)에 의해 만주 전역이 점령됨

관동군의 주도로 만주는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1932년 3월 만주국 성립

만주국 집정(執政)에 청조 최후의 황제 푸이(溥儀)가 오르고 나중에는 만주국 황제가 됨

만주국은 성립부터 만주족에 의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한 국민국가라고 주장

건국이념으로 일본인 한인(漢人) 조선인 만주인 몽골인에 의한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강조

만주국은 건국이후 일본 특히 관동군의 강한 영향 하에 “대일본제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독립국가”로 위치지워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1차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평화기구) 가입국 중 다수는 “만주지역은 중화민국의 주권 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은 이에 반발하여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

이후 이탈리아 독일 타이 등 일본의 동맹국과 우호국 및 스페인 등이 만주국을 국가 승인하고, 소련도 영토불가침을 약속하고 공관을 설치하게 되어, 당시 독립국 전체의 1/3이상의 국가와 국교를 수립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교를 맺지 않고 있던 국가들도 국영기업과 대기업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짐

제2차대전 말기인 1945년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한 소련군이 만주를 침공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자, 8월18일 푸이가 황제에서 퇴위하고 만주국은 멸망

이후 만주지역은 소련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이어서 중화민국에게 반환됨

그 후 국공내전(國共內戰)을 거쳐 현재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됨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국을 역사적인 독립국으로서 간주하고 않는 입장에서, 위(僞)만주국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2. 만주사변(유조구 사건)

1931년 9월 18일 봉천 근교의 유조구 부근에서, 일본이 소유한 남만주철도(南滿州鐵道)의 선로가 폭파된 사건

관동군은 이것을 중국군에 의한 범행이라고 발표하고, 만주에서 군사전개 및 점령의 구실로 이용

사건의 본질은, 장작림(張作霖) 폭살 사건으로 그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자극받은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주도로 봉천 외곽의 유조구에서 관동군 관할이던 남만주철도 선로를 폭파시키고 중국군 소행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철도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

3. 근대화 맹아기 만주지역의 도시화

19세기 중엽 이후 외세의 충격에 의한 문호개방과 더불어 만주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출현

열강의 압력에 의한 개항과 철도 및 항만의 건설과 더불어 연강(沿江)과 연해 지역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가 건설 및 발전

근대 만주의 신흥도시 가운데 만주에서 가장 처음 대외무역항으로 개방된 영구(營口), 러시아와 일본의 조차지로서 외세에 의해 개발이 진행된 대련(大連)

4. 열강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도시화

러시아에 의한 대련의 조계설정 이후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 동북지역은 제국 열강의 조계와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만주지역의 근대도시화가 급속히 발전한 시기

동북지역 도시 중 하얼빈, 여순(旅順), 대련 등의 도시는 제국주의의 침략의도를 지닌 건설규제에 따라 새로이 건설되었고, 명확한 식민지 색채를 지님

만주지역의 근대도시화와 함께 1908년 이후 20년간 동북삼성의 인구는 1천만명 이상 증가하는데, 그중 절반은 이주에 의한 증가

1920년대에는 매년 30~100만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만주로 유입됨

5. 1931년 918사변까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의 동북세력을 교체하기 시작

대련 여순 등의 도시를 점령하고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그 연선구역 및 역 주변 일대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를 건설

동북지역의 대련, 영구, 안산(鞍山), 요양(遼陽), 무순(撫順), 심양(瀋陽), 단동(丹東), 사평(四平), 공주령(公主嶺), 장춘(長春) 등의 만철부속지에는 기차역, 정차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간선도로와 도로망이 배치

역 앞에 배치된 상업, 거주구와 역 뒷편에 배치된 철도공업, 양잔구(糧棧區: 곡식을

보관창고들이 모여있는 장소), 구 도시지역으로 구성됨

6. 1931년 918사변~1937년 노구교 사건

918사변 후 일본은 동북삼성을 점령하고 내몽고와 화북지역 대부분을 점령

1932년 만주국을 건립한 일본은, 장춘을 정치문화 중심으로 삼고 심양을 공업도시로 대련을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감

목단강(牧丹江) 등의 군사도시를 건설함

1932~35년에는 일련의 도시계획을 통해 신경(장춘), 봉천(심양) 및 하얼빈 등 3대 중요도시에 적용

도문(圖們), 목단강 등 국경의 전략적 요충지와 철로분기점과 종점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상 중시되는 도시와 현서 소재지, 광공업 도시 등 지방의 중요 도시에 도시계획을 제정

7. 1937년 노구교사건~1945년 일본항복

노구교 사건 이후 일제는 화북 화중 대부분 지역을 함락시키고, 1942년에는 중국 동부지구 대부분의 도시들이 점령됨

1942년 12월8일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동북 및 화북지역의 변화를 도모하여, “대동아전능병참기지(大東亞全能兵站基地)”화와 대동아공영권을 기도

이 과정에서 많은 도시와 촌락이 훼손되고 대량의 무인지역이 조성됨

항일연군(抗日聯軍)의 근거지에 대해서는 군사행정구역을 설치했으나 전쟁이 확대되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도시 건설은 전면 정지됨

근대도시 봉천(심양)의 성립과 발전

1. 만철 봉천부속지

심양은 동북삼성 제1의 도시로서 구 동북정권(봉천군벌)의 소재지

1905년 동북지역에서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대체하자, 만철부속지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1931년 만주국 성립 때까지 심양은 일본이 점유한 만철부속지, 청정부가 개방한 지역과 만철부속지, 그리고 장작림 관할구역 3개 구역으로 구성됨

만철 봉천부속지는 1907년 제1기 계획과 1920년 제2기 계획으로 구분되어 진행

일본은 봉천을 만주의 경제산업 중심지, 국제적 도시, 만주 교통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을 설정

만철 부속지는 철로역을 중심으로 평행도로와 수직도로, 사선도로로 구성된 방사형 도로망이 채택됨

부속지 용지는 공업용지, 철로 동측의 상업용지, 대광장 부근의 공공시설용지, 주택과 상업 혼합용지, 그리고 북부의 군용지로 구성됨

전체적인 도로망은 단형과 방사형 간선도로를 근간으로 구성

봉천역을 시각적인 중심으로 삼아서 교차하는 5조의 방사형 간선도로가 배치됨

동서축과 남북축의 교차부에는 원형광장이 설치되어 도시평면의 중심을 구성

광장주변으로 은행, 공사, 의원, 우편국, 경찰서 등 대형 공공건축물이 배치되어 시구 경관의 중심을 형성

2. 만주국 시기의 봉천

봉천 도시계획은 장춘의 도시계획과 거의 유사

관동군 특무부대가 주최한 연합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관동군 사령부에 의하여 도

시계획요강이 결정됨

연합협의회는 관동군, 봉천, 만철의 3자로 구성되는데, 여기 2명의 중국인관료가 포함됨

장춘 봉천 하얼빈 목단강 등 주요 만주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중국인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봉천이 유일

이것은 봉천이 오랜 역사를 지닌 대도시이고, 구 시가지의 개조가 도시계획의 큰 과제였기 때문에 봉천시 공서의 주요 중국인을 연합하여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

하지만 도시계획과정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됨

봉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논점이 된 것은 새로 건설될 공업지구의 건설과 경영에 관한 이견

1932년 12월 관동군 특무부는 “봉천공업지역설정경영요강안”을 작성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싼 회의과정에서 일본은 공업지구의 매수를 두고 만철 및 만주국과 합의를 봄

그런데 경영면에서 일본은 만주국이 주관하거나 양자가 출자한 토지회사를 통해 담당할 것을 주장한 반면 만주국에서는 일본에서 관할할 것을 주장

결국 1935년 3월 만철과 만주국의 공동출자회사가 설립되어 공업지구와 주택, 상하수도 및 부대사업을 관할하는데, 이것이 철서공업구(鐵西工業區)가 됨

1934년 확정된 봉천도시계획에서는 공업중심이 도시로서 경제요강의 주요항목으로 책정되어있던 철서공업구의 계획에 중점을 둠

철서공업구는 남택북창(南宅北廠)의 기본원칙이 채용되어 남측에는 주택지구를 배치하고 북측에는 공장지구를 배치했으며 도로망은 격자형으로 구성됨

3. 근대도시 “봉천”

후금의 발상지이자 청 왕조의 배도(背都)로서의 역사적 성격을 보유하던 심양은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개항도시나 신개발도시와는 다른 형성 발달과정을 보임

심양의 근대도시화를 주도한 것은 철도건설과 부속지의 개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발달

심양을 중심으로 동북지역 철도부설이 진행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부속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심양은 청대 심양성과 철로부속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발달

동북지역 제1의 도시로서 도시기능이 강화되면서, 심양은 전통 성구(城區)와 철로부속지, 근대 상부지(商埠地: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개방한 지역), 철광산업구역이 서로 다른 구역에 병존하는 특성을 지님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민족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들과 차별

근대도시 신경(장춘)의 성립과 발전

1. 만철 장춘부속지

장춘은 180여년의 짧은 역사

장춘은 1800년 지방행정기구의 하나로 장춘보에 장춘청을 개설

1865년 성벽 축조

1883년 9만명의 인구

1896년 러시아는 동북지역 진출 후 철도 개설권을 확보하고 장춘에 러시아인 거주구를 확보

1906년 러일전쟁 후 러시아가 장춘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일본으로 이관됨

1907년 만철 부속시가지가 개설된 후 1908년 만철부속지가 확대되고 장춘기차역 건설이 시작됨

1907년 7월 만철은 120만평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지역구분을 행함

철도로 인해 남북 분구로 나뉘어 있던 장춘 시구는 북부와 남부의 동쪽에 양잔용지를 배치하고, 중앙통의 동쪽에 상공업지구, 서쪽에 관공서 학교 사택가(社宅街)를 배치

장춘역을 중심으로 방사형과 단형의 도로체계

도로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넓은 도로는 36m, 가장 좁은 도로는 11m의 도로폭을 지니고 있으며 8간 이상의 보도공간이 설치됨

장춘역 앞은 반경 91m의 원형광장이 설치되고 나머지 주요 지점에도 광장이 배치되어 경관의 미적인 측면을 중시함

장춘 부속지의 양쪽에는 공원이 배치됨

이후에도 만철은 수차례 인접지역을 매수하여 부속지를 확장

918사변 전 장춘은 러시아의 북만철로와 일본의 남만철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고 농산물과 가축의 집산시장으로 발전하여, 농간물가공업, 제재업 등의 공업이 집중됨

918사변 전 장춘은 서로 다른 4개의 행정청이 별개로 관장하는 4개의 시구로 구성

▶장춘부가 관할하는 장춘舊城

사아(沙俄)철로관리국이 관할하는 중동철도부속지-관성자(寬城子)시구
일본만철공사가 관할하는 남만주철로부속지
장춘상부국(商埠局)이 관할하는 장춘상부지

2. 만주국 시기 장춘과 “신경”건설계획

918사변 후 동북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동북지역을 분리하여 만주국을 세우고 장춘을 “신경”으로 개명하여 수도로 함

이후 신경은 만주국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됨

일본이 동북지역 경제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만업(滿業)”, “만탄(滿炭)”, “만척(滿拓)” 등 90여 개의 “특수회사”인 본부 대부분이 장춘에 위치

1932년 12월 관동군 “만주국국도건설국”에서 수립한 신경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범위를 200km²로 하고, 그 중 100km²를 근교농촌으로, 나머지는 도시건설구역으로 책정

신경은 정치도심으로 안민(安民)광장, 경제도심으로 대동광장, 문화도심으로 협화(協和)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구조로 개편됨

도로망은 격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방사형의 도로체계를 겸용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는 원형의 광장이 설치됨

신경은 10개의 간선도로, 73개의 지선도로, 143개의 향간도(巷間道), 10개의 원형광장, 5개의 철로선, 6개의 항공선, 45개의 시내 공공전차선로 외에도 넓은 녹지를 확보한 동북 최대의 근대도시로 성장함

1938년 9월 집정부의 임시궁전 건설이 시작됨

식민정책에 의해 외관상 화려한 발전을 이룬 장춘 곳곳은 민족과 계급차별의 흔적이
녹아 있음

일본은 새로운 구역의 개발에 치중하고, 구 시가지의 발전은 도외시함

수도 건설과정에서 수천호의 민가가 축출되어 도시 주변에는 빈민구가 새롭게 형성되
는 한편, 새로운 구역에는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 녹지 등 근대적 시설이 집중되어
중국인 거리는 철저히 소외됨

만주국은 일본인 주택 기준을 6등급으로 분류하고, 만주인 주택기준을 3등급으로 구
분하는 주택기준을 설정하는데, 만주인 주택 1등급은 일본인 주택 5등급에 해당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

3. 근대도시 “신경”

장춘은 소규모 지방행정도시로 출발했지만, 열강의 침략과 계속되는 도시기능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도시화의 특성-도시중심의 이전 및 서로 다른 형성배경을 지니
는 시구의 집합-과 총체적인 도시질서가 확립되는 후기 근대도시화가 집적된 근대도
시의 특징을 지님

초기에 장춘청과 성보(城堡)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구조는 1896년 러시아의 동북진
출 후 철도부설과 함께 러시아인 거주구를 중심으로 재편됨

1906년 러일전쟁 후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면서, 도시의 중심이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점차 북측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임

일본이 동북지역을 점령한 후, 만주국의 수도가 되면서 “신경”으로 개칭하고, 동북지
역 제1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전형적인 근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 전역이 단일한 구조를 지니는 총체적 개발이 시작됨

이 과정에서 구시가지는 쇠퇴하고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재편 통합되는 현
상이 나타남

장춘은 근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계획적 총체적 성시개발의 전형